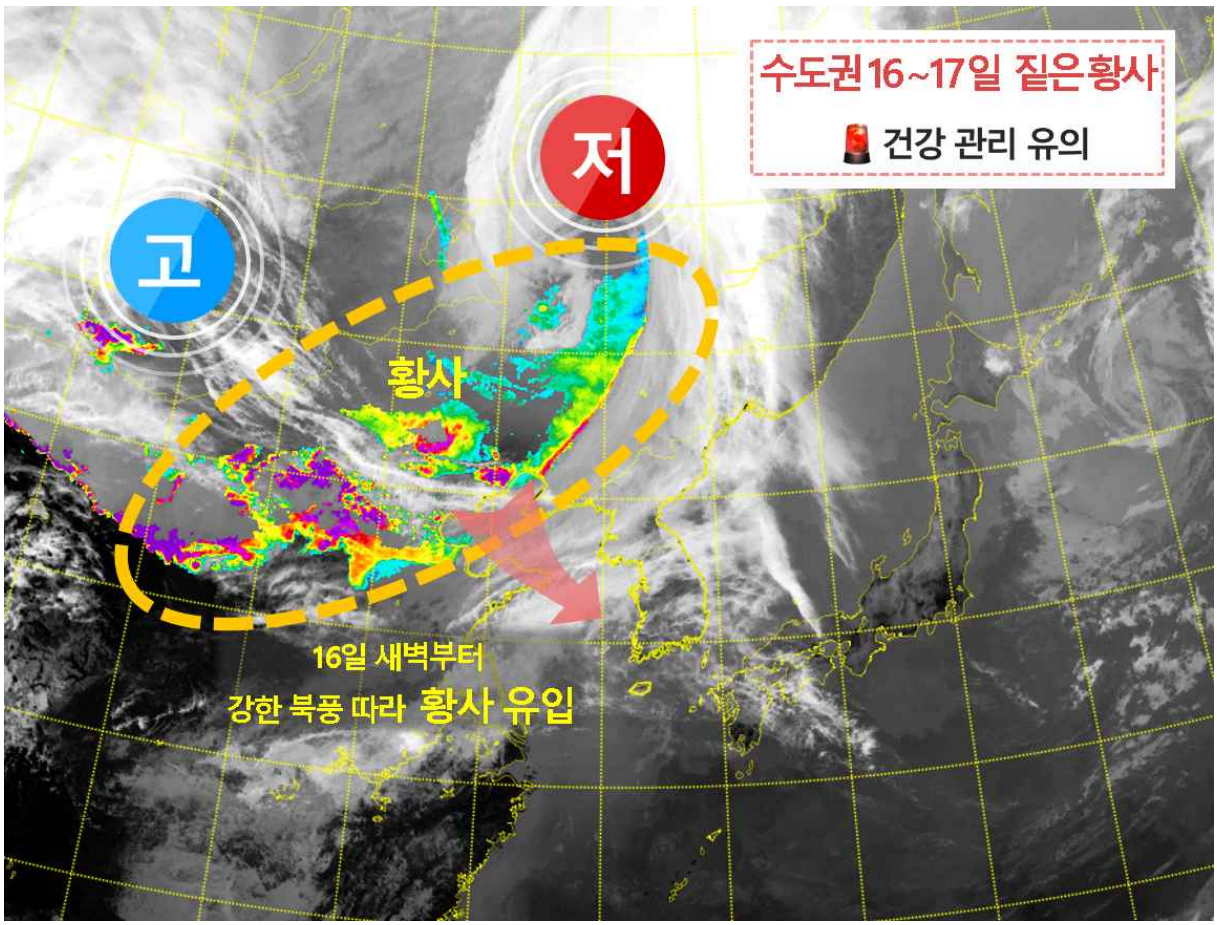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3. 15.(월) 16:00 (총 2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 당 자	과 장 윤 기 한 사무관 이 일 용	전화번호	031-8025-5020

수도권 16~17일 황사, 건강관리 유의

○ 16일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아침~오전에 수도권 황사, 건강관리 유의

-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짙은 황사 유의



[천리안 2A호를 통해 탐지된 황사 현황과 주변 기압계 모식도(3월 15일)]

□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과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장윤석)은 **16(화)~17일(수)에 수도권은 황사의 영향**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 건강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.

□ 14일(일)부터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바이칼호 부근의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크게 벌어지면서, 강한 바람으로 인해 **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*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16일 새벽에 비가 그친 후부터는 황사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겠고, **16일 새벽에 서해 5도를 시작으로 16일 아침~오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황사**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○ **17일부터 수도권에는 황사가 점차 약화**되겠지만,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**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**이 있어 추후 발표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밝혔다.

※ 한편, 3월 8일(월)부터 이어져온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□ 특히, 황사의 유입 경로와 가까운 **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짙은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**이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□ 수도권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**"15일(월) 오후~밤에 중국북동지방에서 황사가 추가 발원할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"**며,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와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.